# 보고, 먹고, 체험하는 '싱싱한 완도여행'

## 장보고수산물축제 내달 4일 개막 28종 프로그램 운영
## 청해진거리 조성 킬러콘텐츠 등 참여행사 대폭 확대

'2018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가 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보고, 먹고, 체험하는 싱싱한 완도여행'이라는 주제로 완도 해변공원과 장보고유적지 일원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린다.

축제는 해상무역왕 장보고대사의 우수한 역사적 자원을 근간으로 완도의 대표인물과 청정바다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자리다.

총 6개 부문 28종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대표행사 2종, 기획 4종, 공연문화 12종, 체험 5종, 전시홍보 3종, 판매 3종이다.

개막 첫날은 장보고대사 고유제, 완도 화합한마당(체육행사), 자매도시 축하공연, 군민화합가왕 선발전과 밤바다 불꽃쇼로 관광객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2일째 어린이날은 청해어린이 한마당, 218m 대형김밥 만들기, 회썰기 관람객 경연대회, 전국 청소년 메이Feel 댄송경연대회, 장보고대사 장례길 놀이, MBC TV축하쇼가 진행된다.

3일째에는 장보고전통 노젓기대회, 통하라 락으로 풍류콘서트, 회뜨기 경연 반값 경매전 등이 열리며, 그리고 오후 7시부터는 국내 최고의 입담꾼과 가수의 토크인 김제동과 이승환의 라이브쇼로 잊지 못할 추억의 밤이 될 것이다.

행사 마지막날은 완도예술인 초청공연과 함께, 해상왕국에서 장보고의 전통을 담은 청해진거리를 조성해 해상왕장보고에 대한 킬러콘텐츠를 제공한다.

군민화합 가왕선발전, 장보고전통노젓기대회, 읍면대항 체육대회 등으로 주민 결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형 축제로 개최한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청정완도 Sea Food관, 특산물판매관, 완도자연그대로 홍보관을 상설로 개설해 관광객들이 전복, 광어, 각종 해조류와 해풍을 먹고 자란 농산물 등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은 완도장보고수산물축제가 주제에서 느낄 수 있듯 청정해역 완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과 건어물 소비촉진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영래 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은 "그동안 장보고축제는 오랜 역사만큼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새롭게 변화한 올해 축제에서 맛있게 먹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행복한 완도여행을 계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봉일 군 관광정책과장은 "이번 축제가 5월 황금연휴에 발맞춰 개최되는 만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행사와 참여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데 주력했다"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꽃잔디·철쭉으로 붉게 물든 완도타워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다도해일출공원이 꽃잔디와 철쭉으로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풍광을 자아내고 있다. 완도타워는 2008년 9월 준공돼 다도해를 한눈에 볼수 있는 명소다.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운동코스로 많이 찾는 완도타워 다도해 일출공원은 완도읍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동망산에 위치해 있다. 전망대에서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제주도까지 보이기도 해 봄철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완도군 제공

# 이제는 '마을 방송'도 휴대전화로 한다

## 진도 무선방송시스템 도입 어디서든 가능…재난·재해 신속 대응

진도군의 마을방송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마을 방송시스템을 마을 이장이 마이크 없이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방송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안방에서 별도의 수신기로 듣게 되는 무선방송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시스템 도입으로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각 가정 내에 수신기를 설치해 재난이나 긴급 상황 시에도 신속하게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마을방송은 마을 이장이 마을회관 내 방송시설을 찾아 마이크를 이용해 실시해야 하고, 산재돼 있는 가구나 자연마을 등에는 방송 내용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 한계를 갖고 있는 실정이다.

총 11억7천500만원을 투입해 올해 66개 마을에 무선방송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2019년까지 242개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시설이 완비되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방송을 하거나 일일이 전화를 해야 했던 마을 이장의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로도 마을 이장이 언제 어디서든 마을 방송을 할 수 있어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시 군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길 행정과장은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연계한 지진·태풍·홍수 등 긴급한 재난 상황 시 신속한 재난방송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진도 수산정책자금 대출이자 차액 지원 나서

진도군이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어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영어자금 등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어업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수산업 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살고 있는 어업인,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영어조합법인이다.

또 기타 영어자금 대출대상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산분야 신규 투자 촉진과 귀어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1억원 미만의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과 귀어·귀촌 창업자금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어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과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 등 어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소득 1조원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세권 기자

# 해남 초의선사 마시던 차 직접 만든다

## 5월 한달간 두륜산 녹차밭 개방

해남군은 녹차체험을 위해 두륜산 도립공원에 조성된 녹차밭을 5월1일부터 31일까지 개방한다.

두륜산 녹차밭에서는 직접 찻잎을 따서 도립공원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된 체험실에서 녹차를 가공해 가져갈 수 있다.

비용은 채엽 5천원, 덖음 5천원으로 체험실에는 덖음과 유념 등에 필요한 가공시설이 갖춰져 있어 잎녹을 녹차로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 참가를 위해서는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채취에 필요한 바구니를 받아, 도립공원 녹차밭에서 잎녹을 채취하면 된다. 만든 차를 시음할 수 있는 음다실도 운영되며, 단체 신청이 있을 경우 다도체험도 가능하다.

체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도립공원 두륜산 자락에 조성된 녹차밭은 2만8천200㎡에 14만주의 녹차나무가 식재돼 있으며, 지난 2006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두륜산은 우리나라 다문화의 중흥조 초의선사가 40여년간 은거했던 일지암 등이 위치한 한국차의 성지로 해남군은 지난 2004년부터 녹차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다.

체험문의는 해남군 도립공원팀(061-530-5957)으로 하면 된다.

/해남=김병용 기자

해남 도립공원 두륜산은 우리나라 다문화의 중흥조 초의선사가 40여년간 은거했던 일지암 등이 위치한 한국차의 성지다. 군은 5월 한달간 두륜산 자락에 조성된 녹차밭을 개방하며 직접 체험도 가능하도록 했다. /해남군 제공